

□特別論文□ 나의 人生觀

人間哲學 序想【6】 人間的인 哲學

朴致祐

마지막으로 나는 나의 말하는 바 인간적인 인간성격을 더 한층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현대 유행철학인 하이데거나 야스퍼스의 소위 '실존Existenz'과 대조해 보련다. 이들의 말하는 실존은 '자각존재'로서의 인간존재를 말한다. 나는 그들이 인간을 실존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을 종래의 논리적 오성적인 추상성으로부터 구출한 공적에 대하여서는 쌍수를 들어서 감탄의 의를 표함에 주저치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이른바 실존이 너무나 비실천적인 인간인 점을 지적 안할 수 없다. 설사 실천이란 관념을 광의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소위 자각존재로서의 인간은 예술적 실천, 윤리적 실천, 종교적 실천(이러한 실천은 사실은 실천이라기보다도 일종의 감흥에 지나지 못한다.)의 주체는 될 수 있어도 감성적, 사회적, 역사적인 실천, 다시 말하면 결국은 생활적인 실천의 주체됨에는 아직도 훨씬 부족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인간해석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인간존재Dasein의 존재Sein(본질)는 관심Sorge이라기보다도 반대로 나는 인간존재의 존재(본질)를 오히려 훨씬 강력한 생활적인 실천, 그것에 보아야만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근본특징이 그가 끊임없는 싸움의 존재자, 실천하는 존재자(나는 실천이란 개념은 언제나 '싸움'으로서만 본다)인 점에 보기 때문이다. 물론 난해로서 유명한 하이데거 철학인 것만큼 나의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오는 오해도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의 인간관이 비실천적이고 비변증법적이라는 나의 견해가 전연 황당한 궤언詭言임에 지나지 못한 것일까?

어쨌든 나는 그의 실존이 가진 바 이 약점은 실로 그의 철학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의 해석학적 방법 그것의 고유한 약점 그것으로부터 유래된 필연의 결과라고 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가 인간의 본질적인 중간성을 불안으로밖에 표상 못한 것도 이 비변증법적(해석학적)인 그의 방법에 유래된 것이라고 못할 것일까? 여하튼 내가 말하는 인간다운 인간의 이와 같은 약질일 수는 없다. 그것은 “자연존재가 아니고 가능존재이며 상위賞僞존재”(야스퍼스, 『필로소피』권2, p. 1)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연존재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능존재며 당위존재일 수도 있는” 존재다.

동시에 야스퍼스의 실존과 같이 주체가 될 수는 있어도 대체大體가 될 수는 없는 그러한 존재도 아니다. 인간다운 인간은 실로 주체일 뿐 아니라 객체일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신 행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남의 행위의 목적도 될 수 있는 존재다. 남을 사랑하며 미워할 줄만 아는 존재가 아니라 남의 사랑도 미움도 받을 수 있는 존재만이 인간다운 인간일 것이다. 남의 생명을 노릴 뿐만 아니라 자신 언제나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인간만이 오히려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행함이 없는 인간 또는 선만을 행할 줄 아는 인간이 있다면 이러한 인간은 도덕적 평가의 주체가 되어볼 기회를

가질 도리조차 없겠기 때문이다. 실로 선행도 가능하였을 죄인만이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리라.

우리는 현대가 직면한 이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약동적인 인간, 경쟁적인 인간, 심장적인 인간, 결국 인간다운 인간을 우리의 인생관에서 먼저 찾아야만 될 것을 제창하는 자다. 새로운 인생관은 인간을 그의 인간성의 상실로부터 구출함으로써 인간다운 인간을 재발견하려는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의 확립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언> 나는 심장적인 인간의 전부가 위기극복의 필요 충분한 조건으로서의 인간이란 것은 물론 아니다. 나의 의도는 다만 적어도, 그렇다 적어도 **이러한** 인간만이 이 난업을 감당할 **가능성**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함에 있을 뿐이다. 필요 충분한 인간은 단순한 정열만 가진 심장적인 인간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까지 겸유할 수 있는 심장적인 인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열을 사회적인 사명수행에 제공할 줄 아는 인간, 즉 개인적인 충동적인 행동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인 실천에까지 확충시킬 수 있는 심장적인 인간만이겠기 때문이다.

(1934년 12월 24일)